

2011



# 최적의 투자처 캐나다

무선통신

캐나다의 경쟁력



Canada 

## 세계 주요 투자기업

-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
- 어바이어(Avaya)
- 시스코(Cisco)
- 시에나(Ciena)
- 에릭슨(Ericsson)
- 화웨이(Huawei)
- 노키아(Nokia)
- 노키아 지멘스 네트워크(NSN)
- 산미나-SCI(Sanmina-SCI)
- 시게 세미컨덕터(SiGe Semiconductor)
- 오라클(Oracle)
- 텔레다인DALSA(Teledyne DALSA)
- ZTE코퍼레이션(ZTE Corporation)

## 캐나다 선도기업

- 벨에어네트웍스(BelAir Networks)
- 브리지워터 시스템즈  
(Bridgewater Systems)
- 드래곤 웨이브(DragonWave)
- 아이크론(Icron)
- 글렌텔(GLENTEL)
- 마이크랄린(Micralyne)
- 미란다 테크놀로지스  
(Miranda Technologies)
- 사이언 테크로지스(Psion Teklogix)
- 소프트웨어 시스템즈  
(QNX Software Systems)
- 레드라인 커뮤니케이션즈  
(Redline Communications)
- 리서치인모션(Research In Motion)
- 시에라 와이어리스(Sierra Wireless)
- 싱클레어 테크놀로지스  
(Sinclair Technologies)
- 베시마 네트워크스(Vecima Networks)
- 보이스에이지(VoiceAge)
- 와이덜리티(Widality)

## 최근 캐나다 투자현황

### 텔랩스(Tellabs)

2010년 말, 미국 시카고에 기반을 둔 무선회사 텔랩스는 IP 전문 성과 무선 네트워크 성능 향상을 위해 밴쿠버에 모바일 인터넷 R&D 사무소를 열었다.

### 화웨이(Huawei)

2010년 4월, 중국의 통신회사 화웨이는 오타와에 6,700만 달러\* 규모의 연구시설을 열어 7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화웨이는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다.

### 디링크(D-link)

2009년, 네트워크와 브로드밴드 및 데이터 통신 전문업체인 대만의 디링크는 토론토에 사업을 확장했다.

### 테크포스텔레콤(Techforce Telecom)

2009년, 미국 켄터키주에 기반을 둔 테크포스텔레콤은 캘거리에 사무소를 열어 통신산업 부문에서 설치와 턴업(turn-up) 및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임.



## 캐나다의 무선통신분야 경쟁력

정보통신기술(ICT)은 캐나다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문에 속하며 캐나다 GDP의 약 5%를 차지한다. ICT는 캐나다 정부의 과학기술 전략 4대 우선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 전략에 속하는 다른 세 가지 우선과제(환경과학기술, 천연자원과 에너지, 보건 및 생명과학)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캐나다는 미래지향적인 국가 디지털경제 전략(Digital Economy Strategy)을 개발하여 ICT 부문을 통해 세계 디지털경제를 주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sup>1</sup> 이 전략은 ICT 부문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디지털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며 업계와 소비자들이 수행하는 사이버 보안 활동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 기업들은 WiFi,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 WiMAX, RFID, UWB(초광대역 무선통신 모듈), SDR(소프트웨어 기반 무선통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캐나다의 무선통신 시장은 다가오는 UHF 대역 스펙트럼 경매가 실시되고 나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통신연구센터(Communications Research Centre Canada, 이하 CRC), 상용화 및 연구 우수성 센터(Centres of Excellence for Commercialization and Research)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이하 NRC) 및 NRC 정보기술연구소(NRC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를 통해 산업 지원을 제공한다. CRC는 캐나다 전역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본 전송메커니즘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주요 플랫폼(무선, 방송, 위성, 광섬유)에서 충분한 연구인력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유일한 국립연구소이다.<sup>2</sup> 2007년부터 캐나다는 연구를 발전시키고 기술, 제품, 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연간 5,700만 달러를 투자해 왔다.<sup>3</sup>

유무선통신 회사들은 ICT 연구개발 부문을 독점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개발에 62억 달러를 지출한다.<sup>4</sup> 캐나다 정부는 풍부한 과학연구 및 실험 개발(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세제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R&D를 장려하고 있다.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와 노키아(Nokia), 화웨이(Huawei) 같은 선도적인 다국적 통신회사들은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R&D 부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스웨덴의 제조업체인 에릭슨(Ericsson) 역시 가장 큰 해외 R&D 및 서비스 센터를 세울 장소로 캐나다를 택했다.

**차세대 네트워크:** 캐나다는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 에릭슨(Ericsson), 화웨이(Huawei), 노키아(Nokia), 노키아지멘스 네트워크(Nokia Siemens Networks) 등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선택한 최적의 장소이다. 브리지워터 시스템즈(Bridgewater Systems)는 갈수록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관리할 수 있는 LTE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드라인 커뮤니케이션즈(Redline Communications)는 세계 최초로 WiMAX 포럼이 인증한 WiMAX 제품라인 일체를 제공하는 기업들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또한 캐나다는 해당 WiMAX 대역에 관련된 국가적 스펙트럼 정책 및 기준에 대하여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모바일 미디어:** 캐나다 기업들은 이메일과 데이터통신에 대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엔드투엔드(end-to-end) 솔루션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업계 선봉에 서 있으며 블랙베리(BlackBerry)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리서치인모션(Research In Motion)과 세계 최대 규모의 M2M(machine to machine) 기업에 속하는 에어카드(AirCard) 모바일 브로드밴드 장비 제조업체 시에라 와이어리스(Sierra Wireless)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캐나다는 모바일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도구 유통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커넥티드 차량:** LTE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개념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 분야의 중심에 서 있는 QNX소프트웨어시스템즈(QNX Software Systems)와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는 4G/LTE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에 주문형비디오(VOD)와 인터넷라디오 등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QNX의 소프트웨어는 이미 GM과 BMW, 포드(Ford), 머스탱(Mustang) 등에서 생산되는 250종 이상의 차종에서 이용 가능하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나노기술, 포토닉스:** 차세대 네트워크가 LTE나 WiMAX를 통해 발전함에 따라, 나노소재와 차세대 전력증폭기를 사용하면 일부 무선장비의 크기, 무게, 전력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sup>5</sup> 캐나다 나노기술 분야의 대표주자로는 앨버타주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래버러토리즈(TRLabs), 앨버타대학(University of Alberta)의 초고속 포토닉스 및 나노광학 실험실(Ultrafast Photonics and Nano-Optics Laboratory), 사이먼프레이저대학(Simon Fraser University)의 4D 실험실(4D Labs) 등이 있다. 선도적인 포토닉스 연구센터에는 NRC의 미세구조 연구소(Institute for Microstructural Studies) 및 그 산하의 캐나다 포토닉스 제작센터(Canadian Photonics Fabrication Centre), 오타와대학(University of Ottawa)의 포토닉스 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in Photonics), 맥마스터대학(McMaster University)의 포토닉스 연구실험실(Photonics Research Laboratories) 등이 있다.

1 “캐나다 정부, 디지털경제 전략에 대한 국가적 협의 착수”, 캐나다 산업성, 2010년 5월 10일.

2 상용화 및 연구 우수성 센터 프로그램 개관, 캐나다 우수성 센터 네트워크, [www.nce-rce.gc.ca](http://www.nce-rce.gc.ca).

3 캐나다와 미국 간의 ICT 부문 투자액 차이가 40%로 증가, CNW 뉴스, 2010년 10월 22일.

4 “친환경 솔루션 채택 · CRC,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방식 강화”, 통신연구센터, 「아이 온 테크놀로지(Eye on Technology)」, 13권, 2010년 겨울호.

5 “친환경 솔루션 채택 · CRC,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방식 강화”, 통신연구센터, 「아이 온 테크놀로지(Eye on Technology)」, 13권, 2010년 겨울호.



##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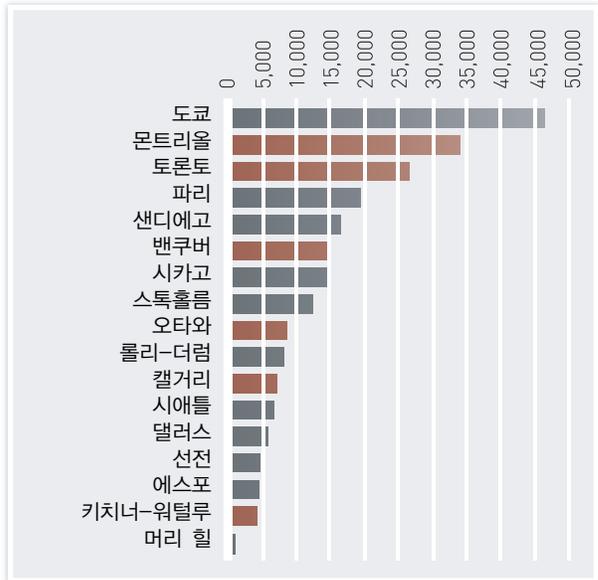
### 장점:

#### 경험이 풍부하고 고도로 훈련 받은 R&D부문 인력 다수 확보

경험이 풍부하고 고도로 훈련 받은 R&D부문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캐나다는 R&D 시설의 설립이나 확장을 고려 중인 기업들에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몬트리올에만 35,000명에 가까운 연구자들이 위치해 있고 토론토와 밴쿠버에 총 40,000명이 거주하는 등 캐나다 3대 도시 모두 최적의 투자처이다. 밴쿠버와 오타와, 캘거리, 키치너-워털루는 전문적인 과학연구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 ▶ 이 도표는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총인원 추정치(2011년 기준)를 나타낸 것이다.

R&D부문 인력(추정치)



출처: 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의 자료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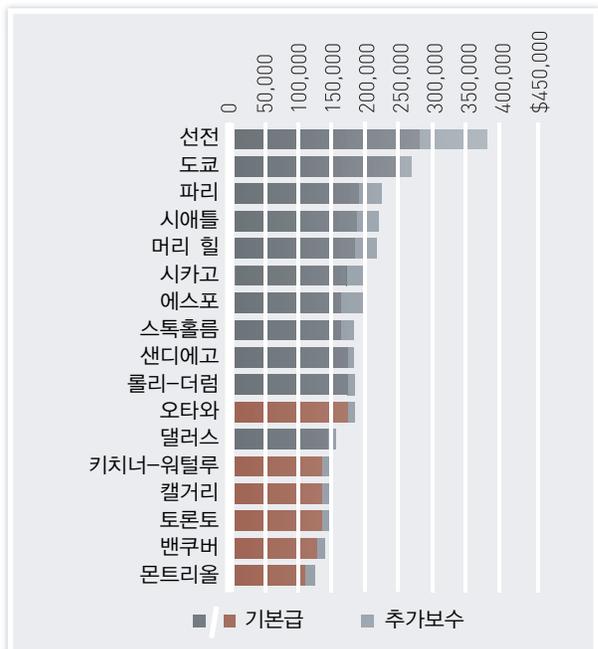
### 장점:

#### R&D부문 임금비용 경쟁력

캐나다의 R&D부문 고위직 임금수준은 아시아와 유럽, 미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 이 도표는 다국적기업 R&D부문의 고위직 임원에 대한 보수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의 R&D 기능을 총괄하는 R&D부문 임원은 일정한 숫자의 국가나 단일 제품라인에 대한 대규모 R&D 센터에서 연구팀을 지휘할 수 있으며, 이들이 감독하는 제품은 기술의 수준이 매우 높고 다년간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 ▶ 도표에 나온 보수 수준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인센티브나 성과급 같은 추가 보수도 포함되어 있다.

R&D부문 책임자



출처: fDi 벤치마크, 타워스왓슨, 2010/2011 세계 50대 급여정책 보고서.

##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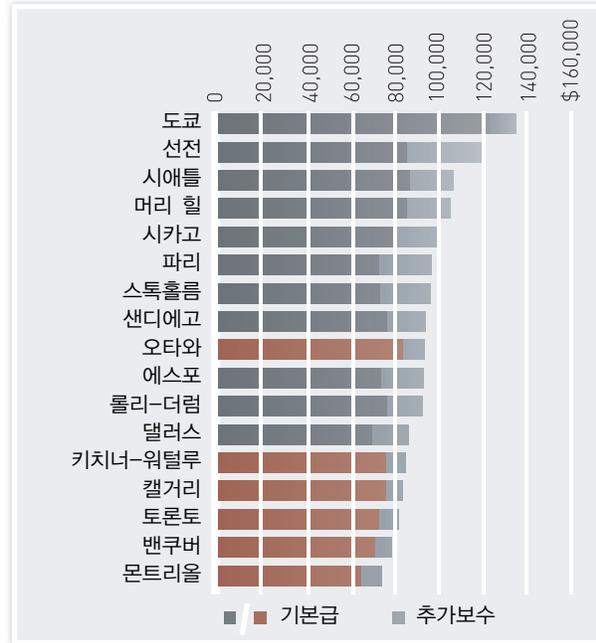
### 장점:

#### 엔지니어링 부문의 임금비용 경쟁력

선임 연구 엔지니어들은 광범위한 지침하에서 근무하며 하급 직원들을 감독할 수 있다. 보통 해당 직무에서 7년의 경력을 보유한다.

- ▶ 보수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인센티브나 성과급 같은 추가 보수도 포함되어 있다.

### 선임 연구 엔지니어



출처: fDi 벤치마크. 타워스왓슨, 2010/2011 세계 50대 금융정책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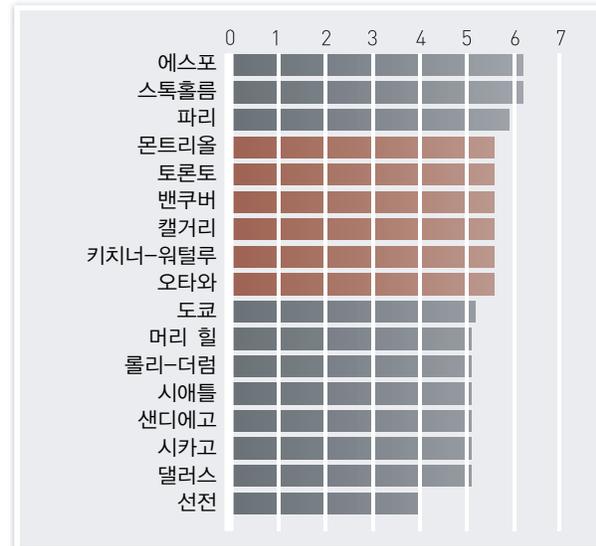
### 장점:

#### 지적재산권 존중

기술의 혁신적 사용을 통해 신규 제품을 제작하는 일이 빈번한 기업에게는 지적재산권의 보호(특허권 보호 포함)가 필수적이다. 이 도표에서 나타나듯 캐나다는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공한다.

- ▶ 이 도표는 주요 도시들을 0부터 7점까지의 범위에서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0점은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낮음'을, 7점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 지적재산권 보호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201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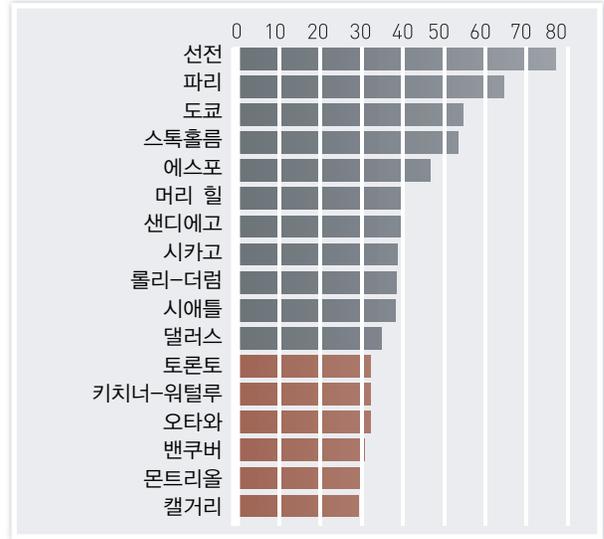
**장점:**

**유리한 법인세율**

캐나다의 법인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 ▶ 이 도표는 주요 도시에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소득세 총액을 나타낸 것이다. 수치는 2009~2010년 사이에 기업의 총이익 대비 세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은행, 2010 기업환경평가, 세금재단, 미국 주와 OECD 국가의 국가·주별 법인세율, 2009년. KPMG, 일반기업 소득세율 (200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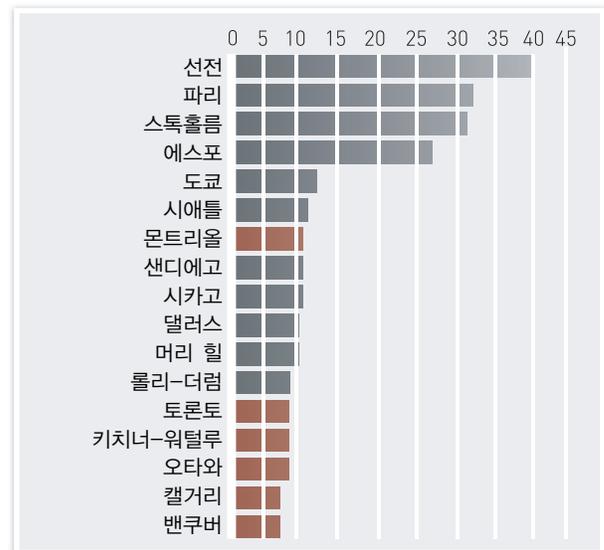
**장점:**

**낮은 사회보장 부담금**

캐나다의 근로자들은 매우 훌륭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 비용은 미국의 일부 주를 비롯하여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 이 도표는 근로자의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기업의 부담금을 나타내며, 수치는 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 보장비**



출처: fDi 벤치마크, 딜로이트인터내셔널, 국제 세금 및 사업 가이드(2009년 10월), 타워스왓슨, 2009/2010 세계 50대 기업정책 보고서, 타워스왓슨 자료(2010년 8월)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국제사회보장협회 (ISSA) 자료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 캐나다의 무선통신산업: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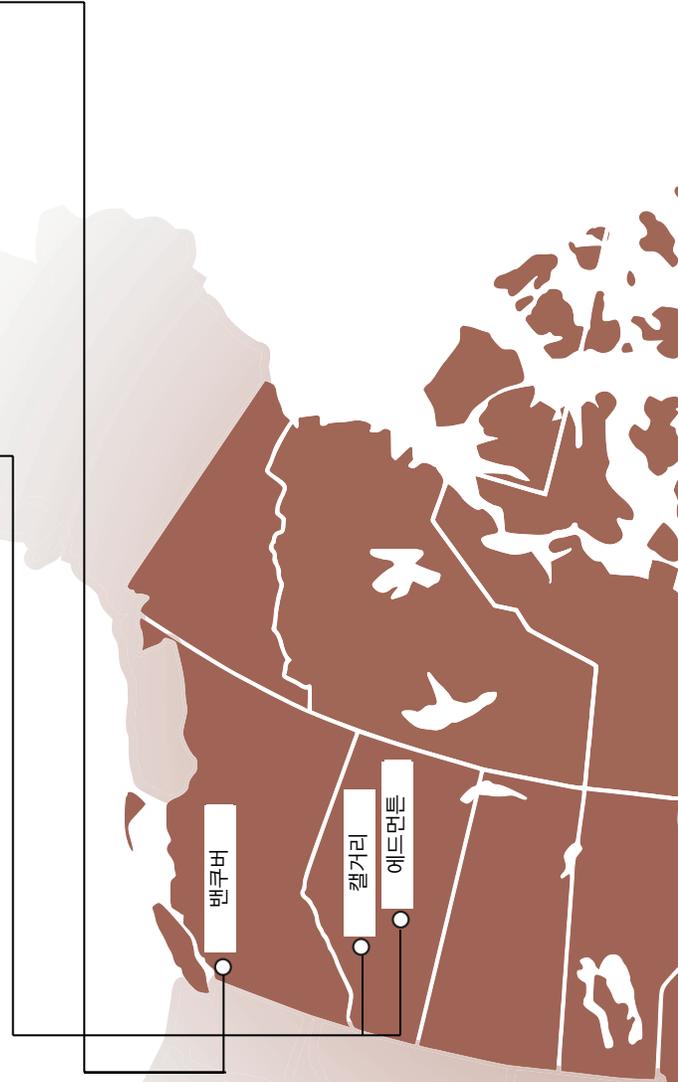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

**밴쿠버**는 디지털 미디어와 무선·모바일 통신 융합부문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웨이브프론트(Wavefront), 글렌텔(GLENTEL), 스타솔루션즈(Star Solutions), 베시마네트웍스(Vecima Networks) 등 1,150개 기업이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밴쿠버는 무선통신 R&D 허브로서 노키아(Nokia)의 R&D 시설에는 시에라 와이어리스(Sierra Wireless)와 PMC-시에라(PMC-Sierra) 같은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최근 텔랩스(Tellabs) 역시 밴쿠버에 R&D센터를 열었다. 밴쿠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사이먼프레이저대학(Simon Fraser University), NRC 소속 헤르츠베르그천문연구소(Herzberg Institute of Astrophysics)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배출되는 풍부한 우수인력을 갖추고 있다.

### 앨버타주 ○

**캘거리**는 산미나-SCI(Sanmina-SCI), 헤미스피어GPS(Hemisphere GPS), 웨지네트웍스(Wedge Networks), 노바텔 와이어리스(Novatel Wireless) 등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모인 중심지이다. 이 곳으로 모여드는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테크포스 텔레콤(Techforce Telecom) 역시 2009년 6월 캘거리에 사무소를 열었다. 캘거리에서 무선통신부문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캐나다 기업으로는 와이덜리티(Widality), 메타포핸드(Meta4hand), 블랙라인GPS(Blackline GPS), 베이스밴드 테크놀로지스(Baseband Technologies) 등이 있다. 이 부문의 연구는 캘거리대학(University of Calgary), 텔레커뮤니케이션 래버러토리즈(TRLabs), 최신무선기술네트워크(NEWT) 시험센터 등이 주도하고 있다.

**에드먼튼**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클러스터에는 세계 최대의 독립적 마이크로 전자기계 시스템(MEMS) 주조공장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로칼린(Micralyne)이 입주해 있다. 이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주요 연구시설에는 앨버타대학(University of Alberta), NRC의 국립나노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Nanotechnology), 나노팜(NanoFab) 연구시설, 나노앨버타(nanoAlberta), 앨버타고급MNT제품센터(ACAMP) 등이 있다. 마이크로 및 나노기술 MEMS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는 노르카다(Norcada), 하딩인스트루먼트(Harding Instruments), 빅뱅위스(BigBangwidth)가 있다.





## ○ 온타리오주

화웨이(Huawei), 오라클(Oracle), ZTE코퍼레이션(ZTE Corporation)은 **토론토 광역권**에 위치한 3,300개 이상의 첨단기업을 대표하며, 오라클은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상위 25개 IT 다국적기업에 속한다(2010년 브랜햄그룹(Branham Group) 보고서). 토론토대학(University of Toronto)의 통신연구소 나노네트워크(NANOnetwork), 요크대학(York University), 온타리오대학 기술연구소(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배출하고 뛰어난 연구성과를 내는 등 훌륭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키치너-워털루(Kitchener-Waterloo)** 지역에 위치한 '테크놀로지 트라이앵글(Technology Triangle)'은 세계적인 유명기업 리서치인모션(Research In Motion)과 텔레다인DALSA(Teledyne DALSA)의 본사가 자리한 곳이다. 다국적기업인 아이세라(Icera)(구 시리픽 와이어리스(Sirific Wireless)), 엘에스아이(LSI), 샌드바인(Sandvine) 역시 이 지역에서 활발한 R&D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키치너-워털루의 명문인 워털루대학(University of Waterloo)과 윌프리드로리어대학(Wilfrid Laurier University)이 배출하는 인재들은 이 지역의 700여 첨단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산업중심지를 뒷받침하는 연구시설로는 커뮤니테크(Communitech), 액셀러레이터센터(Accelerator Centre), 워털루나노기술연구소(Waterloo Institute for Nanotechnology), 무선통신센터(Centre for Wireless Communication), 자동차연구센터(WATcar) 등이 있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는 1,600개 이상의 첨단기업들이 모여 있다. 어바이어(Avaya),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 브리지워터 시스템즈(Bridgewater Systems), 시에나(Ciena), 시스코(Cisco), CMC일렉트로닉스(CMC Electronics), 드래곤웨이브(DragonWave), 에릭슨(Ericsson), 미텔(Mitel), QNX소프트웨어 시스템즈(QNX Software Systems), 시계세미컨덕터(SiGe Semiconductor) 등의 기업들은 오타와에서 왕성한 R&D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명 캐나다 및 다국적 기업들에 이어 2010년 4월에는 화웨이(Huawei)가 R&D 시설을 설립했다. 이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오타와연구혁신센터(OCRI), 캐나다첨단기술협회(Canadian Advanced Technology Alliance), 캐나다정보기술협회(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Canada), NRC의 정보기술연구소(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캐나다 포토닉스 제작센터(Canadian Photonics Fabrication Centre)가 있으며, 오타와대학(University of Ottawa), 칼턴대학(Carleton University), 알곤킨 칼리지(Algonquin College) 출신의 인재들을 고용하고 있다.

## ○ 퀘벡주

**몬트리올**은 스웨덴의 다국적기업 에릭슨(Ericsson)이 최대규모의 해외 R&D 및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통신장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포토닉스 전문기업에는 웨이브셋(Wavesat), EXFO, 미란다 테크놀로지스(Miranda Technologies), 울트라 일렉트로닉스(Ultra Electronics) 등이 있다. 몬트리올의 최첨단 디지털미디어 중심지에는 몬트리올 소재 5,000여 ICT 기업 중 상당수가 위치해 있고, 연간수익은 총 90억 달러에 이른다. 몬트리올 광역권에 있는 4개 종합대학과 7개 고등교육기관은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브로몽**에 위치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혁신센터(Microelectronics Innovation Centre)는 마이크로칩 패키징 기술과 MEMS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글로벌 중심지이다. 2억 1,800만 달러 규모의 이 시설은 DALSA 코퍼레이션(DALSA Corporation), IBM 캐나다, 셔브루크대학(Université de Sherbrooke), 퀘벡주정부 및 캐나다연방정부와 제휴관계에 있다.

## 캐나다의 경쟁력

### 간단한 사업등록 절차

캐나다에서 투자자들이 사업등록을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는 한 단계뿐이다. 해당 연방당국이나 지역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여 상호를 등록하면 된다. 법적 지위를 얻은 사업체는 활동지역을 소관하고 관련 세법과 노동법을 적용하는 규제당국에 등록할 수 있다.

### 사업등록에 필요한 절차의 수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은행, 2010 기업환경평가.

###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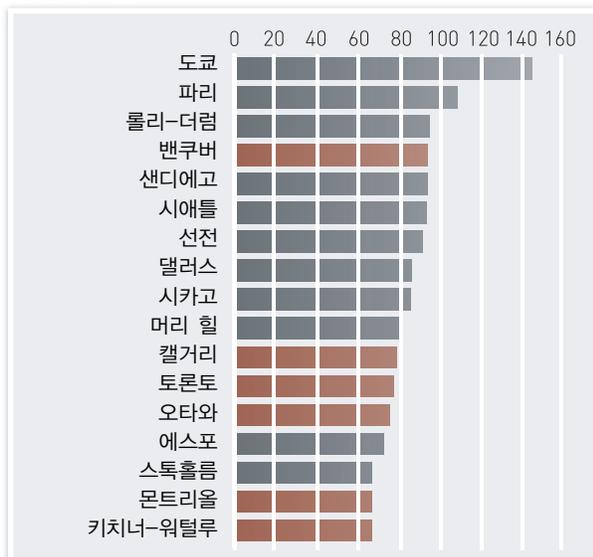
#### 뛰어난 삶의 질과 합리적인 생활비

캐나다의 도시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 아시아와 미국의 도시들에 비해 캘거리,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키치너-워털루는 더 낮은 생활비와 더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한다. 2011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밴쿠버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았고, 토론토와 캘거리 역시 10위권에 들었다.

▶ 이 도표는 주거비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비를 평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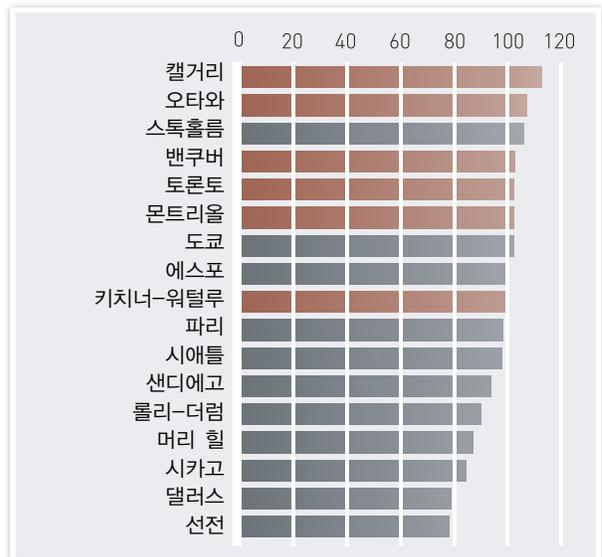
▶ 이 도표는 삶의 질에 관련된 요소를 평가한 것이다.

### 생활비 지수



출처: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의 자료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 삶의 질 지수



출처: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의 자료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 투자지역 벤치마킹

상기 표와 그래프는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Ltd.)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fDi 벤치마크(fDi Benchmark, www.fdibenchmark.com)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이 검색도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데이터베이스와 입지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부문과 투자사업에 대하여 전세계 국가, 지역, 도시의 매력도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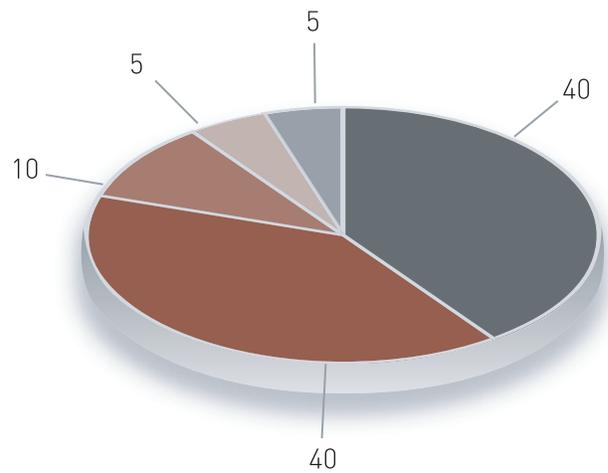
- ▶ 이 문서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된 캐나다 및 외국 도시들은 무선통신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다.  
 선정도시: 캘거리, 시카고, 댈러스, 에스포(핀란드), 키치너-워털루, 몬트리올, 머리 힐(뉴저지), 오타와, 파리, 롤리-더럼, 샌디에고, 시애틀, 선전, 스톡홀름, 도쿄, 토론토, 밴쿠버
- ▶ 다음 기업 프로파일은 시내에 위치하는 직원 30명 규모의 작은 무선통신 회사에 대한 자료이다.

### 무선기술센터

비용 요소	사용량
건물	평방미터
총 사용면적 (시내 사무실 임대)	600 m <sup>2</sup>

직원유형	인원
<b>정보기술</b>	
네트워크 애널리스트	1
네트워크 엔지니어	1
프로그래머	5
프로젝트팀 리더	1
선임 디자이너	1
선임 관리자	1
선임 시스템 애널리스트	1
선임 프로그래머	1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	4
소프트웨어개발 관리자	1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10
시스템 애널리스트	2
시스템 디자이너	1
<b>총 인원</b>	<b>30</b>

### 질적 모형 / 가중치 적용



가중모형 개요	가중치	색상
노동가용성과 질	40%	■
산업클러스터의 존재	40%	■
일반 사업환경	10%	■
인프라 및 접근성	5%	■
주거환경	5%	■

## 캐나다의 경쟁력

캐나다는 수많은 장점과 최고의 잠재력을 자랑하며,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 고급 인력

캐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2위의 고등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출처: IMD, 2010년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 유리한 사업환경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향후 5년간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캐나다를 꼽았습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사업환경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 2011년 3월)

### 견실한 경제

2009년 3분기부터 캐나다 경제는 6분기 연속 성장하고 있고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된 일자리와 생산량 손실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1년 예산)

### 금융 안정성

지난 3년간 캐나다의 은행시스템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견실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 낮은 세율

신규 기업투자자에 대한 캐나다의 전반적인 세율은 G7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법인세율 역시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0년)

### 과학연구와 실험개발

캐나다는 매우 풍부한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R&ED)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G7 국가들 중에서 R&D 주도 분야의 사업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출처: KPMG, 2010 경쟁력 있는 대안(Competitive Alternatives 2010). OECD)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의 NAFTA가 제공하는 이점을 통해 투자자들은 4억 4,800만 명이 넘는 북미 소비자들과 대륙 전체의 GDP 합산액이 미화 16조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대규모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데이터베이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0년)

###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

세계적 수준의 대학, 널리 인정받는 보건의로 체계, 깨끗하고 친절하고 도시들, 멋진 풍경을 고루 갖춘 캐나다는 사업투자자와 근로, 생활, 가족 부양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출처: 유엔개발계획, 2010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2010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Global Liveability Report 2010))



캐나다에 투자하십시오.  
성공의 시작입니다.

#### 캐나다 투자청

외교국제통상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서섹스 드라이브 111(K1N 1J1)

[vp.investincanada.com](http://vp.investincanada.com)

카탈로그 번호: FR5-38/13-2011E

ISBN 978-1-100-18403-6